

說說 끊는 단일화 ... 필적 뛰는 후보들

‘대선 D-13’ 뉴스 초점 비문연대 성사될까

중반전에 접어든 대선전에서 바른정당이 제시한 비문(비문재인) 후보 단일화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3·4·5·6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MBC 라디오에서 전남 밤 열린 긴급 의원 총회 결과에 대해 “결론은 유승민 후보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비문연대’ 차원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유 후보는 원칙적으로 본인 혼자만의 완전한 완주를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당이 추진하는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언

바른정당 의총 ‘비문 3자 원샷 단일화’ 추진 ... 유승민 “완주”
한국당 홍준표 “이번주 보수대통합 ... 안철수와는 이념 달라”
국민의당 단칼 거부 “인위적 연대 안 돼 ... 국민의 선택 받겠다”

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후보와 유 후보 간 ‘보수후보단일화’, 안 후보와 유 후보 간 ‘중도보수단일화’에는 선을 그었다.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비문 단일화는 몇 차례 시도될 기미를 보였지만 정당별, 후보별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이 ‘비문 3자 원샷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비문 단일화의 불씨가 되살아난 형국이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지지율 하락으로 당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내린 고육지책이지만 문 후보의 독주 체제를 인정하기 싫은 정치세력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이란 분석도 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3자 단일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의견일치가 중요하다. 그런데 일단 모두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단일화를 제안한 바른정당 소속의 유 후보까지 완주 의지가 확고하다.

유 후보는 25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여성신문 및 범여성계 연대기구 주최 성평등정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완주입장에 변함 없느냐’는 질문에 “기본 입장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날 기자회견을 열어 “제안하더라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치인에 의한 인위적 연대는 거부한다”며 “오직 국민에 의한 연대만 가능하다. 저희는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에는 보수대통합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단일화 대상으로 유 후보와 새누리당 조원진,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를 꼽았지만,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념과 정체성이 너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 후보의 보수 후보 단일화가 실현되더라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예측이 지배적이어서 정치권에서는 대선 변수로 취급하지 않는 분위기다.

또 ‘비문 3자 후보 단일화’가 어려운 것은 본선 과정에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데다 ‘친박 인적 청산’ 문제와 안보 정책을 둘러싼 정체성 차이가 결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인위적 선거연대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쉽게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당장 문재인 후보 측은 3자 단일화 논의를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다. 바른정당은 투표지 인쇄가 시작되기 직전인 29일 이전까지 단일화 성사를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만 3~4일 만에 이 같은 난관을 뚫고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른정당의 이번 단일화 추진에 대해 보수진영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다. 즉, ‘시늬뿐인 단일화’ 제안이라는 주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내년 착공...협로 예상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에 조만간 나서기로 한 데 대해 광주시의회가 예산심의권 행사 등을 통해 견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착공까지는 협로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운정현 시장이 민선 6기 임기 내 착공을 공약한 상황에서 6월 말까지 입찰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2호선 건설 공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25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시의회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심의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산건위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조달청 발주보다는 그동안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에 적합한 차량 형식을 직접 공정하게 결정하는 책임행정을 시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8대·전남 8대 약속 등 민주당 대선공약 추가 발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고 호남 표상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애를 썼다. 〈관련기사 4면〉

이날 민주당의 광주·전남 대선 공약은 지난 3월 20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가 광주에서 발표한 공약에 비해 진일보해졌다는 평가다. 다양한 콘텐츠와 세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대선공약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정책본부장, 전해철 특보단장, 강기정 총괄수석본부장, 백재현 국가재정위원장, 이개호·신정

훈 전남상임선대위원장, 이형석·양항자 광주상임선대위원장, 박혜자 대변인, 서갑원 특보 등이 참석했다.

공약은 ▲광주·전남 상생 3대 약속 ▲광주 8대 약속 ▲전남 8대 약속 ▲영호남 상생 약속 등으로 나뉘었다.

광주·전남 상생공약은 ▲5·18 정신의 현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광주·전남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메카’ 육성 ▲광주 연구개발특구에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등이다.

에너지산업 메카 육성에는 빛가람혁신도시와 광주 도시첨단 산단을 연계한 에너지밸리 조성,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 한전공대 설립 등의 세부사업이 포함됐다. ▶2면으로 계속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월호 인양 한 달 답답한 수색 ▶6면

청년이 미래-스토리박스 강수훈 ▶18면



부처님 오신 날 기다리는 오색 연등 부처님 오신날(5월 3일)을 1주일 앞둔 2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경내에 오색의 연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17 PINK RUN

핑크런 광주대회

핑크리본사랑마라톤에서 핑크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5.14.(일요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
기념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런 사무국 (1688-9744)
참가신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www.pinkcampaign.com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사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MBC, KBC광주방송, KBS광주방송총국

A MORE BEAUTIFUL WORLD / AMCF 20 by 20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